■ 광주 첫 자율형 공립고 상일여고 가 봤더니

벌써 4차례 시험…“학원보다 꼼꼼”

광주에서 첫 자율형 공립고로 문을 연 상일여고 신입생들이 8일 영어전용교실에서 수업에 앞서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준별로 맞춤 교육…학습 효과 상승

‘자율권 확대’ 국·영·수 週 7시간 늘려

입학사정관제 대비 자격증 인증반도

올해 광주에서 첫 자율형 공립고교로 문을 연 상일여고가 공교육 현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 공립고교에 비해 자율성이 대폭 늘어난 상일여고는 우선 신입생을 지도할 교사 20명 전원을 초빙했다. 교사의 평균연령은 35세로, 경험보다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따졌다. 교육 과정도 수준별 수업 등 학생 위주로 뜯어고쳤다.

최근 2011년 개교를 목표로 광주제일고와 광주고 등 2곳이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지정되면서 상일여고의 이 같은 교육시스템을 지켜보는 사람도 많아졌다.

◇한발 빠른 교육으로 사교육 막아라=8일 상일여고에서 만난 1학년 박훈민양은 “학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꼼꼼한 지도를 받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중학교 시절 유난히 약한 수학과목 때문에 중위권에 머물렀다는 훈민양은 “영어는 만점을 받을 정도인 데 수학은 유명학원을 아무리 다녀도 50점대를 넘지 못했다”면서 “학교의 겨울방학동안 특강에서 하(下)반에 참여한 뒤 70점대까지 뛰어올랐다”고 자랑했다.

중학교 때 상위 10%내의 성적을 유지해온 양귀비양도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 실력을 다졌다. 상(上)반에 배치됐던 귀비양은 “문제집 풀이 위주의 학원과는 달리 개념과 응용문제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돼 수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1월 반 배치고사에서 80점대였던 수학성적이 2월말 시험에선 99점으로 치솟았다”고 말했다.

상일여고는 지난 1월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1차 반 배치고사를 치른 뒤 성적에 따라 상·중·하 3개반으로 나눠 개학 직전까지 매주 2회씩 수학 특강반을 운영했다. 방학동안 네 차례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개학 이후 수학과 영어 과목에 대해서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국·영·수 주요 과목에 집중해라=상일여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업 시수의 35% 범위내에서 시간표를 자유롭게 짤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일여고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주당 수업시간을 일반계고보다 7시간 추가했다. 대신 컴퓨터 등의 수업시간은 축소했다.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은 그대로다. 급식시간 이후 요가 운동도 의무 사항이다.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라=독서기록장을 배부한 뒤 재학기간 동안 최소 200권의 권장 독서를 읽고, 감상문을 쓰도록 했다. 수학여행은 남도문화기행 등 학습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영어·국사·한자·정보소양 등의 인증제반을 운영해 각종 스펙을 넓히도록 했다. 이외에도 ‘1학생 1악기’ 다루기, ‘1동아리’ 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기르도록 했다. 이러한 모든 교육 과정은 입학사정관제에서 중요한 개인 포트폴리오로 변신하게 된다.

◇학생에게 교육을 서비스하라=상일여고는 교사와 학생이 결연을 맺어 담당교사가 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관리한다. 또한 자정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교사들이 실시간 답변하는 방식의 ‘온라인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학교 박도훈 교장은 “상일여고의 교육철학은 교사의 권위를 벗고,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자율형 공립고=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운영되는 학교로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뽑을 수 있고, 전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내에서 늘릴 수 있고, 선택 교과 편성권은 학교자율이다. 학교별로 5년간 매년 2억원씩 지원된다.

‘영광 금은방 강도’ 장물 처분 50대 구속

영광경찰은 8일 지난 1월 발생한 ‘영광 금은방 강도사건’과 관련된 장물을 처분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박모(54)씨를 특가법상 장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5일 정오께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김모(41)씨 등 3명이 영광의 한 금은방에서 강탈한 귀금속을 2억원에 팔아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김씨 등이 빼앗거나 훔친 귀금속 6억7천만원 상당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3억8천만원에 팔아주고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자사고·자율고 신입생

내신·면접 2단계 전형

2011학년도부터 광양제철고 등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도 중학교 내신 등으로 1.5~3배수를 걸러낸 뒤 2단계로 이 점수에 면접을 더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인증시험 성적 등은 전형요소에서 제외되고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도 금지된다.

교과부는 특목고에 이어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비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일부 자율고 등 14개 일반고도 2011학년도부터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광양제철고는 1단계 전형에서 5과목 내신성적(300점)을, 2단계에선 1단계 점수와 면접(40점)을 합산해 선발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러 유학생 또 피습

괴한 흉기에 찔려 중태

지난달 러시아에서 어학연수중이던 광주교대 3학년 강모(22)씨가 현지 청년 3명에게 집단폭행 당해 숨진데 이어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한국인 유학생 1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

주러 모스크바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드나야의 한 상가 건물 앞에서 모스크바 국립 영화대학교(브기크) 3학년에 재학 중인 심모(29)씨가 괴한 1명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심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모스크바에 6년 전 유학 온 심씨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이날 예배가 끝나고 생일을 맞은 교포 자녀 4명과 다른 유학생 1명과 함께 노래방을 다녀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심씨가 일행과 헤어지고 나서 10여m를 걸어가던 중 흰 가면을 쓴 괴한이 달려들어 목을 감싼 뒤 심씨를 공격하고 곧바로 달아났다. 심씨는 ‘퍽’하는 소리와 함께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범인은 순식간에 현장을 떠났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심씨가 사고를 당한 지역에서는 지난주에도 외국인 1명이 현지 청년들에게 피살되는 등 과거에도 크고 작은 외국인 대상 범죄가 자주 일어났던 곳이다.

현지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 수법으로 미뤄 외국인을 상대로 한 스킨헤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의자 검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 현지 대학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광주교대생 강씨가 지난달 15일 극동 알타이주 바르나울시에서 청년 3명에게 흉기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바 있다. /연합뉴스

나원참 〈8056〉 김종두

광주·전남 겨울철 밀렵 56건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4개월간(지난해 11월~지난 2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0건(67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 3건, 전남 53건, 제주 4건 등이다.

밀렵은 대부분 총기로 이뤄졌으며, 독극물이나 불법엽구(獵具)가 이용되기도 했다. 밀렵꾼들은 멧비둘기 96마리와 꿩 2마리, 오리 2마리, 노루 1마리 등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총기를 이용한 지능적이고 대담한 밀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밀렵 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양돈장 불 400마리 소사

8일 새벽 0시20분께 무안군 운남면 정모(56)씨의 축사에서 불이나 돼지 383마리와 내부면적 792㎡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전기 보온등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

밥 굶고 시험 치러야 하나

초등 진단평가 5학년 점심시간 없어 논란

전국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9일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치러지는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의 점심시간이 배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9일 실시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에서 초등학교 5학년은 점심을 굶고 시험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시험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초등학교 5학년은 오후 1시에 시험이 종료된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정섭 정책실장은 “점심까지 굶어가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초등학생의 현실”이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험인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시험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험은 광주·전남 초·중학교 913개교에서 모두 29만3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차량털이범 父情 때문에 ‘덜미’

쌍나팔

○…30대 상습 차량털이범이 둘째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부정(父情)에 이끌려 아내가 출산한 병원을 찾아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철창행.

○…광주북부경찰은 8일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턴 김모(35)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화순군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박모(39)씨의 승용차에서 금반지 등을 몰래 가져가는 등 모두 21회에 걸쳐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김씨는 범행 후 70여일 이상 경찰의 수배망을 잘 피해다녔으나 이날 “아내가 둘째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뒤, 병원을 찾았으나 김씨의 동선을 미리 짐작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